

## 강성재

### 과문

바람이 산 속을 자맥질한다  
저물도록 흔들리는 구름의 손길을 따라  
한가하게 유영하는 나뭇잎들

노송의 뿌리에 기대어  
고개 숙인 해그늘을 본다  
해그늘 끝머리에  
시린 생의 이슬이 묻어 있다

사는 게 참 힘들지?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야

서늘한 바람이 세차게 가슴을 치고 간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풀잎들이 꼬리를 흔들며 숨을 쉬고 있다  
내가 알 까닭 없는  
산의 심층에서도



2004년 『한맥문학』 시부문 당선. 오레곤 문학회 회원. 미주 한국문인 협회 회원. <http://myhome.mijumunhak.com/ksj>

나무 뿌리의 숨결은 있을 것이다

산허리를 가른 바람이  
 나뭇잎을 잡고 흔든다  
 산은 움켜쥔 제 식구의 손을  
 슬그머니 놓아 버린다  
 흙먼지가 세차게 산을 흔든다  
 산의 아픔이며  
 내 삶의 파문이다  
 아니다, 나는 내 삶의 파문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지금 내 곁을 스쳐 간 바람은  
 다시 오지 않는다  
 내가 놓친 삶도 다시 오지 않는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 가는 바람  
 이런 것이 삶의 파문일까  
 이렇게 많은 제 식구를 거느린 산이  
 그 바닥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을 숨기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나는 새삼 산을 지탱하는 뿌리에 대해,  
 뿌리의 시름에 대해,

또 내 삶의 파문에 대해,  
생각 한다

뿌리 깊은 나무는  
큰 바람에도 의연하다

## 강화식

## 포이즌(Poison)

뒤에서 뿔어낸 기체가  
 구석구석 스며들자  
 날숨과 들숨이 고르지 못하고  
 모래 바람으로 짝 찬 머릿속.

단지  
 뿔뿔한 생리작용이라는  
 빗나간 배짱 때문에  
 봄날 황사처럼 뿌연 안팎.

문을 닫아도  
 부채질하는 병인이 있어  
 병이 든다.  
 많은 사람들이.

늦었지만  
 탄소동화작용의 빠른 힘과



서울 출생. 2007년 미주 《중앙일보》 시부문 당선. 『한국미래문학』 『문학세계』 신인상 수상. 미주시인,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최면을 걸어 밀어내자  
스핑크스의 흔적들을.

이제.

## 권태성

### 아기 잎새들의 일생

이른 봄  
귀여운 아기 잎새들

나는 너희들의 일생을  
내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고 있나니  
한 해도 채우지 못할  
너희들의 짧은 일생  
그리 순탄치 않은 앓을 터

이른 봄, 부드러운 햇살에  
부지런히 살찌우고  
긴 여름의 하루 해  
원 없이 즐기다가  
저무는 가을 들녘  
북게 물들어  
물 시인들의 입방아에



1947년 전주 출생. 2002년 『문학세계』 신인상 수상. 오레곤 문학회, 문학의 즐거움 회원. <http://myhome.mijumunhak.com/taesoung>

술하게 오르내리겠지

찬 바람

뺨속까지 스며드는

어느 날, 너는

낙엽이라는 이름으로

겨울 비에 젖어

사라지리니

너의 짧은 일생을 보며

몇 십 배 길다는

나의 일생도

부처님 손바닥 보듯

훤히 보이누나

## 김경용

## 동상(Statues)

존엄한 모습들—  
 허나, 평화의 이름을 도용하여  
 역사의 먼 지평을 더럽히는  
 음흉한 시선들—  
 가면을 안 쓰고선  
 역사의 뒤를 바라볼 낮이 없는  
 패역한 물골들—  
 변명 말고는 더 할말이 없기에  
 근엄한 척 앞으로 내민  
 오만한 턱주가리—  
 허구한 날  
 비둘기의 똥 세례를 받으면서도  
 후안무치(厚顔無恥)  
 그냥 저 높이에 서서 버티겠다.



뉴욕주립대학교(버팔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미주문학』 시부문 신  
 인상(1998). 마운트 버논 나자렌 대학교 명예교수.



## 김내수

### 생의 자국과 영혼의 흔적

세월의 흑염(黑炎) 돌개바람결에  
천번 만번 수없이  
굵혀 생긴 생의 아린 자국  
할퀴어 찢긴 영혼의 흔적들

그것은  
쏟아지는 폭우  
옥죄오는 무거운 어두움

하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소낙비  
찬란한 아침 노을 부르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 폭우와 어두움 뚫고 새어나온 한 줄기 하늘 빛살  
이었습니다

그것은  
호젓한 해변을 거닐다가 주워든 오붓한 추억의 조감지였고



전남 곡성 출생. 내과의사. 『문학세계』 2001년 시 당선.

성글고 뽀죽한 진순결 드러내는  
푸른 하늘의 눈부신 흰 구름이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내려앉아 불가능을 노래하던  
무람없이 철없는 한 마리 새였습니다

한 세월 한 세상을  
물 소리에 발을 씻고  
바람 소리에 머리를 씻고  
새 소리에 꿈을 씻고  
삶의 맺돌 쥘 적마다  
그 부스러기 조각들 떨어지면  
마음과 영혼 속 모순의 빈 자리를 그것들로  
메웁니다

## 김모수

### 대화(對話)의 집

안채에서  
상거 10미터쯤에  
사랑채가 있는 이유를 알아냈다

돌다리 건너  
손님 마중을 가는 동안  
편견(偏見) 따윈 물 밑으로 가라앉고

느릿느릿 걸음 거드름 헛기침으로  
마음을 추스르던  
옛 선비들의 슬기가 돋보인다

재 넘고 강을 건너  
동구 발모통이를 돌아오면서  
아집(我執)의 모서리가 닳아진 길손

매번 낚새를 알아차린



『창조문학』시 등단. 미주한국문인협회, 재미시인협회 회원, 시와 사람들 동인. 저서로는 시집 『달리는 차창에 걸린 수채화』, 『주홍빛 신호등』이 있다.

담쟁이 고사리 손이 얼마나 숨차게  
사랑채 토담을 기어올랐을까

대문 밖은 아직 겨울인데  
사랑방에서 피어오르는 따스한 입김이  
얼어붙은 골목을 데운다

대화(對話)의 집  
한 채 마련하는 데  
강산이 한 열 번이나 바뀌었나 보다

## 김신웅

### 민달팽이

해가 기울고 있다.

민달팽이  
기어 온 세월

구르는 가랑잎 하나하나에  
남아 있다

지난 여름 무성하던  
나뭇잎에 남은 껍적

이슬방울에  
햇살 당겨 안아도

세상일이 뒹구는 일이라서  
민달팽이 속엔 바람만 차고



50년대 토요 동인. 『시와 시론』으로 등단. 해외동포문학상, 가산문학상 수상. 미주 한국기독교문인 협회 회장 역임. 저서로는 시집 『대합실』, 『바람 없는 날에도 뜨는 연』이 있다.

무게 잃은 민달팽이  
낙엽과 함께 굴러서 간다

민: 아무 꾸밈새나 덧붙여 딸린 것이 없음  
달: 햇빛을 반사하여 밤에만 빛을 냄  
팽: 烹... 필요치 않을 때 버리게 되는 경우  
이: 다른 말 뒤에 붙어 사람을 뜻함

민달팽이  
껍질 싹여만 간다.

## 김영교

## 춤추는 풍경

그토록 답답했습니까  
가벼운 듯 바람에 기대어도 숨췄습니까

소리 없이 착지(着地)하는 인간의 신체  
충돌의 불꽃  
움직임의 극한을 흘러  
발끝이 핑핑 돌아도  
넘어지는 것은 세상이었지요.  
허공의 한 지점에 시선을 모으고  
속도를 달고 회전하는 마술 같은 기교  
파르르 떨며 팽이처럼 중심을 서서  
살려놓은 그 수많은 풍경들  
몸의 성취에 취하여 감격하며 박수를 쳤습니까

뒤돌아보는 그 눈빛  
습한 어두움을 화들짝 밀어내는 섬광  
그날도 그런 불빛을 쏘아



안데스 문학상, 해외 문학상, 이화문학상 수상. 현재 미주 한국문인협회 부회장. 저서로는 시집 『우슬초 讚歌』, 『신호등(Traffic Lights)』, 『물 한 방울의 기도』, 『너와나, 그리고 우리』, 『소리 지르는 돌』, 산문집 『길 위에서』가 있다. <http://www.poet.or.kr/kyo>

생명을 불 당겨주며 당신은  
안으로 안으로 폭삭 사그라지고 있었습니까

슈벨트의 겨울 나그네  
수목들 사이에서 바라보는  
공연장 원컨 통로에서 127번 자리  
비었습니다. 꽃다발을 안고 찾아오는 누이들

이제 무대 밖  
위와 아래를 이어주는 한 쪽 발끝은 땅에 꽂은 채  
다른 다리를 바깥으로 높이 치켜들어  
균형과 유연의 절묘한 아름다움  
서른 두 번의 회전을  
태우고 타고 흐르고 흘러간 그 불꽃이  
왜 이토록 가슴 저리게 만듭니까

자주색 목인 예술가의 초상  
공중으로 뛰어 올라 잠시 머무는 듯  
세우가 뿌려지던 혜화동 언덕길의 사라와 나를 향한  
그 눈빛은 꺼지지 않고 서 있습니까

풍경은 여전히 춤추고 있습니까.



## 김인자

## 시(詩) 속으로 잠입하네

어두운 밤, 시(詩) 속으로 잠입하네  
 침묵의 열린 세계  
 시간의 족쇄가 풀린 상상의 지평이  
 무한의 빛으로 달려가네

흐르고 흐르다 짜깁기된 사연들  
 회한의 거뭇한 조각들  
 순간에 압축된 얼룩이나  
 시공을 물들인 원색의 그리움  
 그들은 만년 세월의 무너인가요?

한 송이 꽃으로 피우지 못하고  
 마음 끝까지 설레고 헤매다가  
 차디찬 어느 세월에 몸을 던져 차라리  
 화석으로 숨을 멈췄나요?

그러나 만년 세월인들



서울 출생. 이대 약대 졸업. 월간 『문학세계』 등단. 저서로는 시집 『심안으로 보는 길』이 있다. <http://myhome.mijumunhak.com/kiminja>

당신의 의미는 시간으로 잴 수 없는 것

아름다움은 더 깊은

바람 같은 빛 같은 슬픔 같은

일상의 흐름 속에 녹아서 투명하게

비가시(非可視)의 광속(光速)에 찰나로 보이는

빛으로 오는 당신의 미

세상이 정지된 찬란한 침묵이여……

돌아오는 길은 아예 지워졌네

한세상 폭 삭이겠네

## 김희주

### 피검사

만났다  
어느 봄날  
하이양게 터진 벚꽃  
연분홍 진달래  
노오란 개나리  
온몸 구석구석  
찌릿찌릿 흐른다

주사 바늘이 꽃히면  
혈관 따라 그 봄이  
줄줄 따라 나올 줄 알았다

웬걸,  
잊고 살았던  
석남사의 가을 단풍  
불게불게 터져 나오고 있다



부산출생. 『창조문학』 시 등단. 시와 사람들 동인.

Dr. 박은  
어떻게 판독할까?  
이 일을.

## 박경호

### 흔적

겨울비 잠깐 멈추었다  
벗꽃나무 빈 가지에  
물방울이 매달렸다

방울꽃이 피었다

저 영롱한 것들  
가지에 잠깐 앉아  
세상 한번 휘둘러보고  
사라지지만

녹아 없어진 자리  
몇 점의 흔적  
나무 속으로 스미어든다

사람이 남긴 흔적은  
세파에 바래 없어지지만



경주출생. 시와 사람들 동인. 한국국제펜클럽 해외동포 신인 시부문 최우수상.

나무가 품은 흔적은  
늘 파랗게 다시 나와  
키를 키운다.

## 박복수

## 보행

구름이 지루해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바닷물이 슬퍼서  
 흘러가는 것도 아니다  
 대지가 답답해 몸을 틀어  
 파괴와 생성(生成)을  
 일삼는 게 아니다  
 걸으며 비움을 배우고  
 오늘의 나의 과제는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짙어진 보따리 따위  
 한발 한발 다 버리며  
 걷고 또 걸으면  
 안팎의 찌꺼기  
 소금되어 떠나고  
 시원한 바람소리 들리니  
 나는 오늘도 걷는다



『수필과 비평』 수필 등단. 『문예운동』 시부문 신인상. 재미기독교문협 이사장 역임. 한국문학진흥재단 공동발행인. 한국문협, 미주문협, 국제펜클럽, 재미시협 회원.

## 배정웅

## 데스 마스크

—히바로 인디언의 목

깊은 물길 속에 나무 하나 오래 가두면  
 향내 나는 침향목이 되었다  
 수심 깊은 물길 속에서 것처럼  
 여느 사람의 머리가  
 관광 상품이 된 적 있었다  
 멀고 먼 남쪽나라 \*어느 나라에서는.

사람의 영혼이 잘 빠져나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이여, 한때는 그대와 입맞춤하던  
 그 입술마저도 촘촘히 꿰매어졌으리  
 그리고선 아마존의 초록 양귀비꽃빛 물살과  
 서러운 나비 떼와 햇빛과  
 원시의 궤적을 시간 시간 고하는  
 어디 숲속의 지빠귀 울음  
 그 서슬에 천날 만날 작아질 대로 작아지고  
 큰 슬픔인 듯 마냥 굳어진 그것.



부산 출생. 『현대문학』 추천완료. 시집으로 『사이공 서북방 15마일』, 『길어올린 바람』 『새들은 뻘루에서 울지 않는다』 『반도네온이 한참 울었다』 외 다수. 미 이주 백주년 기념 『한인문학 대사전』 대표 편찬위원. 현재 시 전문지 『미주시인』 발행인, 편집인. 해외한국문학상 등 수상.



아기인형인 양 차마 감기지 않는 눈(眼)  
억지로 죽음처럼 감기어진 눈의 그것.

이렇게 내 시의 언어로도 되살아오는  
에스빠놀말로 아무개 아무개 아무개  
아득히 낮설어서 더 애간장 끊어지는 이름의  
히바로 인디언의 목.

오, 나의 또 다른 데스 마스크  
그 언제던가 내 머리 숨겨두었을지도 모르는.

주 : 남미 에쿠아돌에서는 인디언의 목이 서양인들의 애호상품이 된 슬픈 역사가 있음.

## 백선영

## 지도와 지구본

홀쩍 떠날 수도 없는데  
언제부터인가  
지도를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파트로 옮긴 다음부터는  
더욱 작아진 나의 후원, 베란다에  
나가 앉는 버릇으로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유체이탈의 분신이 되었습니다

화분에 옮겨온 산딸기나무를 비롯해서  
향기로운 프리메리아  
매혹적인 프린세스  
핏빛 꽃 기린 선인장  
마음은 아직  
지도 한 켠에 박혀있을  
나를 찾고 있는 일상



《한국일보》 신인상 시부문 입상, 『창조문학』 신인상 수상. 시와 사람들  
동인. 미주 한국문인협회 회원.  
<http://myhome.mijumunhak.com/sunyoung>

오늘은 상상도 못했던  
귀한 지구본 탐시계를  
성탄선물로 받았습니다.

10월 어느 날  
초록 섬에서 진주를 보았다는  
한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햇-벗  
지구본 경계를 초월한  
동그란 마음으로 나를  
훨훨 날려주고 있습니다.

## 변재무

### 버팀목

머리 잘려나간

팜트리(Palm tree) 하나 서 있다

나아갈 길 찾아 허공을 더듬으며

땅위를 기어가던 담쟁이

그 내미는 손마다 자신의 온몸 내어주고

앞새들에 파묻힌 팜트리 등걸

바람결에 달짝이는 앞새 사이로

검은 몸뚱이가 보였다 가려진다

크고 작은 앞새마다 윤기를 내며

하늘로 일어서는 담쟁이들

저 죽은 나무등걸 하나

마침내 한 생명의 버팀목 되어

파릇하게 서 있다.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에 논픽션 당선, 『창조문학』 시부문 신인상. 글마루, 시와 사람들 동인,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오렌지글사랑모임 회장 역임.

## 서용덕

## 깨어나는 날

봄을 기다리는  
 밝은 날의 깊은 꿈속  
 까맣게 젖은 하늘 바라보고  
 긴긴 밤 쉬이 가지 않는  
 느린 시간을 재촉하더니  
 초조한 모습 감추지 않아  
 서러운 찬바람 달아나는  
 눈부시게 열리는 하늘을 보네  
 뜬눈으로 분주한  
 모아온 진액 뽑아 올리려  
 뒤통치 들어올린 발돋움은  
 진한 향 품은 꽃빛 치장한  
 보석 같은 연한 나를  
 마른 눈물로 솟아 오른  
 껍데기 벗고 숨 고르는 날.



전라북도 부안 출생. 1984년 미국 이민. 『미네르바』 신인상, 『한맥문학』 수필 신인상. 서북미문협, 미주한국문협, 크리스천문협 회원. 시집 『이 세상에 e-세상』, 알래스카 거주.  
<http://myhome.mijumunhak.com/ays>

## 석상길

### 데스 밸리

모래 구름을 걷다가  
그녀가 나즈막하게 말했다  
“엄마, 나 시(詩) 넣으려고 해요”



1939년 출생. 1980년 이후 미주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에 시 발표로 문학 활동. 1994년 『창조문학』 시 신인상.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 <http://myhome.mijumunhak.com/suksangkil>

## 석정희

### 투립

옆드려 있다  
내미는 손에  
봄이 한 응큼이다  
손을 펴면  
하늘을 채우는 향기  
경이로움 아닐 수야  
산에도 언덕  
강기슭에 그 손들  
봄 버무리고 있다



Skokie Creative Writer Association 영시등단. 한국 크리스찬 문학, 창조문학 시부문 신인상. 한국 문협, 국제 펜클럽 한국 본부 회원, 미주 문협 이사, 미주시인 전문지 편집기자, 미주크리스찬문협 사무국장, 제 4회 한국농촌문학상 해외특별대상 수상.  
<http://myhome.mijumunhak.com/sukchonghee>

## 송석증

## 연어

아내가 저녁상에  
 연어구이를 올렸다  
 허! 내가 아는 놈 아닌가  
 나는 곧 한눈에 동향임을 알아보았다  
 내 고향  
 강원도 면주군 왓산면 대화실山  
 그 아랫마을 남대천에 살던 바로 이웃  
 너는 왜 언제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알라스카로 이민 와 고생 고생하다가  
 어찌하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 왔노라고  
 그간 맘 고생이 더 많았다고  
 몸 고생이야 시간이 딱지 만들지만  
 맘 고생 아물어도 핏자국 선명하다고  
 생소한 물맛에 뻗속이 아렸다고  
 무지개 좇던 아이들 산마루 앉아 건너편  
 산에 걸린 영롱한 빛 눈 시려 울었다고  
 천수답 자르르 윤기 흐르는 햅쌀밥



1945년 서울 출생. 1997년 『시대문학』 신인상 등단. 저서로는 1998년 『바다 건너 온 눈물』, 2003년 『내 콩팥이 혈액정화를 거부했을 때』, 2005년 『지시할 땅으로 가라』, 2007 『혼자 저녁 먹는 사내』가 있다.



그렇게나 무척 식탐했다고  
노르스름한 살색만 보아도  
영락없는 한 동양 사람인데  
타향에서 만나도 살 떨리는 법이거늘  
남의 땅에서 이렇게 무작정 해후하니  
가슴 떨려 할말 잃고  
젖가락 든 손 후들거려 멍청하게  
주르륵 비린내만 풍기고 있다

## 송정룡

## 동굴 속의 생불

칼스베드 동굴에는  
 백만의 수도승이 살고 있다  
 태초의 검은 원죄를 벗겨내기 위해  
 흉한 모습 그대로 좌선하고 있다  
 뒤집혀 돌아가는 세대  
 제정신으로는 볼 수가 없어  
 거꾸로 매달려 속죄하고 있는 복익(伏翼)\*들  
 바깥 세상의 황사가 싫어  
 진창의 악취가 겨워  
 산 속보다 더 깊은 곳에서 선정(禪定)하다가  
 해 떨어지는 시간  
 하늘로 날아 답답한 속을 훨훨 털어내고  
 해충을 잡아 명을 꾸려가는  
 어둠 속의 생불들  
 누가 그들을 동굴 속의 요괴라 했는가

오늘도 그들은 세상을 등지고



대전출생.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창조문학』 시 등단. 시와 사람들 동인.

깊은 어둠 속에서 낮은 소리로  
직 직직(直直)……  
염불을 하고 있다.

## 신 소피아

### 산타아나의 봄

종일

뜰을 활는 햇살 좋은 날

산타아나 바람 골의 길투에

겨우내

참았던 열망이

봄꽃으로 타오른다

풀꽃의 반가운 손짓에

젖빛 외투 벗고

유유히 봄 위를 걸어본다

옥색 두루마기 풀어

물오른 나뭇가지에 걸쳐 놓고

가득히 안겨오는 향수에 취한 나를

강풍이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간다

산타아나 봄은 이렇게 왔다



Fuller 신학 대학원 선교 목회학 박사 과정 중 2005년 한국 월간 『문예 사조』 신인 문학상 수상. 재미시인협회,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시향” 카페 동인. 저서로는 사화집 『시의 향기』(공저)가 있다.  
<http://shinsophia.com>

## 안선헤

### 해맞이

어둠이 머물고 있는 절벽  
아무런 기미 보이지 않는 먹물 바다

그림자로 일렁이는  
비알에 선 갈대  
서걱서걱 먹물 갈아  
허공에 난(蘭) 한 자락 치고 있다

어제도 그제도 뜨던,  
오늘은 새해로 뜨는 해  
수억의 눈동자  
초점을 맞추는 동녘 하늘

황금 필(匹)을 펼치며  
숫구치는 알몸  
눈이 부시다



경남 마산에서 태어남. 2002년 『순수문학』으로 등단.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무병장수(無病長壽)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축원들이 퍼져 나온다.

## 오정방

## 기도

이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음을 고백한다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재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됨을 확실히 깨닫고 믿기에 겸손히 무릎 꿇어 빌 수밖에 없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민망케 하시는 전능하신 공의의 그분에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 하시며 상한 갈대조차 함부로 꺾지 아니 하시는 신실하신 사랑의 그분에게 가장 낮은 자세로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다



『세기문학』 시, 미주 《중앙일보》 시조, 『문학과 육필』 수필 부문 등단. 현재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 오레곤문학회 회장. 시집 『다시 태어나도 나는 그대를 선택하리』, 『그리운 독도』, 『영혼까지 독도에 산골하 고』(공저) <http://www.poet.or.kr/ojb>

윤석훈

## 중국산 가구

언덕 아래 다리  
다리 아래 가구공장 보인다  
대패밥 속에서는  
황소 닮은 눈동자들 어리고  
얼룩진 작업바지 속에선  
단 한번의 휴가도 없이 불박이 된  
알통 나온 종아리들 보인다



1960 강원도 양양 출생. 2003 『현대시문학』 등단. 미주시문학회 회원.  
미주한국문인협회 사무국장.  
<http://myhome.mijumunhak.com/hoondds>



## 윤종길

## 사는 동안 간간히 · 2

어느 봄 피가 혈관 속을 고속으로 달리던  
 아직 미성년의 시절  
 점심 때쯤 친구와 함께 예배당을 지나  
 신작로를 걷고 있었다  
 양조장 앞 길 소주에 취한 햇살이  
 가로수에 칭칭 감겨 추태를 부리고 있었는데  
 그 햇살이  
 가슴팍을 톡 치며 길을 막아 섰다  
 나 봄날에는 취하지 못해 환장하는  
 이 마을 건달이다  
 그래도 비켜라 못 비킨다 비켜라 못 비킨다  
 비켜라 못 비킨다 비켜라 못 비킨다  
 그 순간 길목에서 배운 버릇이 고개를 들었다  
 발작을 하고 말았다  
 악의 의식은 10초 안에 끝나고  
 봄 햇살은 껍데기를 벗어 신작로에 튀겼다  
 가로수 뒤에 숨어 달아났다 다음날 아침 일찍



1967년 지평선 동인, 한국시단 동인. 1997년 『열린문학(한국)』 신인상. 2003년 재미시인협회 회원,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원. 2005년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UPLI (국제계관시인협회) 회원. 2007년 UPLI 메달 : FOR EXCELLENCE IN POETRY 받음.

그의 형수라는 여인이 찾아왔다  
따라가 보았다  
환히 마루에 누워 앓고 있었다  
싱싱한 엽보의 꼬리가 나의 목을 주렁주렁  
꽃나무 가지에 매달고 있을 때  
그의 형수라는 사람이 살짝 마루끝으로 돌아섰다  
살구꽃 냄새가 났다

## 윤휘윤

## 델루스의 출렁다리

출렁다리 위로 건너 간다  
 기력지가 너무 길고 덩그렇다  
 두 팔 벌려  
 짹 잠은 무게가 던진 파문이 어찌나 벌렁벌렁 흔들리는지  
 엉금엉금 발에만 눈 주고 가는데  
 미끌 또 미끌  
 이대로 가다간 떨어질 것 같은데  
 이끼낀 나무바닥이 와르르 역장 무너지는 소리  
 아무래도 나를 들어내야 겠다  
 다시 평온을 되 찾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출렁다리



경북 예천 출생. 『심상』 신인상으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재미시인협회 회원, 미주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저서로는 시집 『이민시대』.

## 이기윤

### 시내

찬양 부르며  
낮은 곳으로 흐른다

만나는 상대마다  
끼인 때를 씻어주고  
모난 곳을 알아낸다

하늘 빛 받아  
꽃 피고 열매 맺게 도우려  
사랑을 실어 나르며  
밧걸름으로 스며든다



고려대 국문과 졸업, 문교부 장관 표창, 한의학박사 한의대 교수, 한국 문인협회, 미주한국문인협회, 재미시인협회,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회원, 한맥문학가협회, GMA(Global Mission Association) 이사, 오렌지글사랑모임 회장, 시집 『환한 그리움에』(합동)의 12권.  
<http://myhome.mijumunhak.com/zongpa>

## 이성열

## 뒤꿈치

신을 사서 신이면 언제나  
 다른 부분은 말짱하고  
 오직 뒤꿈치만 닳아 버린다  
 뒤꿈치만 온 힘으로 일하고  
 구두 전체를 도맡아 감당하며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

세상의 지평은 결코 평탄치 않기에  
 지형의 높고 낮음이 구석구석  
 예측키 어렵기에 사람들은 자고나면  
 바른 잣대로 똑바로 재자고  
 아우성치는지 모른다

홀로 온 힘으로 버티고 있는  
 세상은 늘 문짝의 돌쩌귀처럼  
 소수의 책임지는 몫을 하는  
 것들에 의해서 유지되어 가고 있다



“APA” 우수 신인상 수상 등단, 미주 《중앙일보》 단편소설 당선. ‘진열장의 시(Poetry in the Window)’ 상 수상. LA Poetry Festival 구성위원,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역임. 저서로는 시집 『바람은 하늘나무』, 『하얀 텃세』 등이 있다.

<http://myhome.mijumunhak.com/yisungyul>

혼자 메고 갈 짐이 너무 무겁다고  
불평 말라 너는 세상의 주인이니  
시간이 나면 수선소에 가서  
징이나 하나 박아 넣어 주리라

## 이윤희

## 봄맞이

때가 오고 있다고  
 때가 가고 있다고  
 아무 때나 꽃 피우는 것 아니다  
 칠부능선 입춘(入春) 근처  
 골짜기로 오글대는 봄기운에 온몸 간지롭다  
 철 이른 개나리하며 오만가지 산꽃 나무들이  
 견디다 못 견디다 밖으로 내미는  
 저 뜨거운 통점(痛點), 통점(痛點)들

보면서도 묵묵장고(默默長考)  
 침묵이 고요보다 더 깊어 차라리 고사(枯死)를 넘어선 듯  
 서 있는 나무  
 밤새도록 산 파먹으며 퍼붓는 일월(一月)의 바람, 소낙비  
 골짜기 따라 누운 큰 바위 뱃구레 후려치며 넘어서는  
 순간을 잡았다  
 시시하게 하나 둘 애순(一筍) 띄우지 않고  
 화끈하게 피어났다



미주 《한국일보》 시부문 당선. 『창조문학』 신인상 수상, 재외동포문학  
 상 시부문 입상. 국제펜클럽한국협회, 한국문인협회, 미주한국문인협  
 회 회원, 시와 사람들 동인.

<http://myhome.mijumunhak.com/leeyunhong>

보라,  
저 나무의 장엄한 만개(漫開)를  
제 몸,  
찌-억- 갈라 희디 흰 속살 드러낸 모습을

때 기다려 분지른 한 생(生)의 끝  
비로소 봄맞이 절정에 다다랐다  
나무의,  
온몸으로 피워내는,  
꽃들보다 향기로운 향기가  
산길을 말아 올린다  
복숭아 뼈 아프도록 휘감는다.



## 임혜신

## 지하철

맨하탄, 렉터역\*에서 만난 그대 더러워서 못살겠다는 듯이 우스워서 못살겠다는 듯이 깔깔깔 웃음을 터뜨리던 그대 때묻은 긴 스커트를 걸친 엉덩이가 풍선처럼 떠오르게 웃어대던 필시 미친 그대

다 빠져버린 이빨 사이로 쌓였던 치통을 내보내고 줄무늬 죄수복을 입은 애인을 내보내고 폐부 속 깊이 등지를 틀었던 뒷골목 깡패들까지 무질서하게 쫓아내던 그대

필시 어디서 충성이라도 들렸다는 듯이 그대의 입 속을 튀어나와 쏜살같이 달아나던 가방을 든 새들, 마약을 먹은 새들, 성경을 읽고 있는 새들, 싸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하얀 새들의 광폭한 합창, 낮을 잃고 바라보던 내 심장에 꽃히던 동굴 속의 검은 아리아

거대한 배암처럼 열차가 달려올 때 싸늘한 벽에 기대서서 성한 내가 미친 그대를 핑음처럼 사모했던 촌음의 웃음소리

그 언젠가



워싱턴 문학, 미주 《한국일보》로 등단. Global Network of Poets, 민터 동인, 워싱턴문인회, 해외문학회,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저서로는 『환각의 숲』, 『Korean - American Poetry Anthology』(공저), 『임혜신이 읽어주는 오늘의 미국 현대시』. <http://myhome.mijumunhak.com/sarahan>

황금빛 가을 별판의 허수아비처럼  
허허롭고  
낭랑한 방생

\* 맨하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철역으로 화려한 뉴욕의 이면을 드러내는 위험하고  
낙후된 역 중의 하나.

## 장선영

### 비움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기다림의 착각이겠조

헛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움에 눈이 멀었나 봐요

입술로 비우고  
마음으로 비우는 다짐은  
손아귀에서 빠져 나올 줄을 모릅니다

비움이란 오직 유행어에 불과한 모양입니다  
너도 나도 목에 걸고 다니니…….

뭔가 들리는 듯  
뭔가 만져지는 듯  
비워지지 않는 밤입니다



인천출생. 『문예연구』 등단. 재미시인협회, 한국문인협회,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 장효정

### 꽃잎

발정 난 꽃이  
봄을 덮치고 있다  
꽃잎에  
홍건한 핏물

젖 망울이 아려와  
파스처럼 꽃잎 한 장 뜯어 붙인다

그 꽃물 스며들어  
가슴에 꽃불을 켜다.

퍼져나가는 우주의 파동



강릉출생.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 『한맥문학』 시 등단, 시와 사람들 동인. 저서로는 시집 『내가 나를 엿보다』가 있다.  
<http://myhome.mijumunhak.com/changhyojung>

## 정국희

## 자음과 모음이 겹쳐 보인다

눈을 가늘게 뜨고  
 짐작으로 ㅁ과 ㅅ을 구분한 다음  
 질끈 감았다 세계 떠본다

그늘 같은 침침함으로  
 서서히 흐려지는 부분들  
 물러가는 시력 때문인가  
 몸의 안쪽으로부터  
 내장된 기억들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다.

지식의 통로였던 눈동자  
 감정의 굴곡이 바쁘게 이루어져  
 의사소통의 물줄기였던 것이  
 모호한 세월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운 것들이 서서히 말려가고 있다



완도출생. 『창조문학』 시 등단. 시와 사람들 동인, 시문학회 회원.

子음과 母음사이가 멀어  
각도를 맞추지 못하고  
한쪽 눈가에 파리가 앉아 있다며  
갑갑해 하시던 어머니 뒤를  
나도  
한발 한발  
가까이 따라가고 있다.

## 정용진

### 설매부(雪梅賦)

조춘잔설(早春殘雪)이  
산록에 차가운데  
매화 옛 등걸  
눈망울이 슬프다.

봄, 나비도  
늦잠이 깊었거니  
게으른 시인의  
시심(詩心)을 일깨우는  
설중매(雪中梅)의 고고한 자태여.

올곧은 선비의  
지조(志操)로운 친품이  
호문목(好文本)으로 버터 서서

이 아침  
필력(筆力)이 미진(未盡)한



“지평선” 시인 동인.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장, 회장 역임. 미주문학상, 한국크리스찬문학상 대상 수상. 저서로는 시집 『강마음』, 『장미 밭에서』, 『빈 가슴은 고요로 채워두고』, 『금강산』, 에세이집 『마음 밭에 삶의 뜻을 심으며』와 1권.

<http://myhome.mijumunhak.com/chongyongchin>

내 서창(書窓)에도  
지사고심(志士高心)의  
설향(雪香)이 파사롭다.



## 조영철

## 핑계

모년, 모월, 모일  
 내가 죽을 거라는 통지서,  
 앞으로 살 날이 딱 3일 남았다면  
 우선 생각나는 게  
 보고팠던 사람들 찾아보고  
 가고파도 미웠던 곳  
 듬성듬성 훑어봐야겠는데  
 3일은 너무 짧은 것 같다

첫째 날은 화가 나고  
 둘째 날은 한숨만 쉬다가  
 24시간 x 60분 x 60초 = 86400초나 되니까  
 초침마다 토막 난 지난날을  
 실컷 그리워하기엔 짧다고  
 마지막 하루도 허둥대겠지만  
 사실은 길어질 마지막 날 아닐까



부산출생. 『창조문학』 신인상 수상. 서북미한인 미술인협회 이사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시와 사람들 동인.

마음이야 풀면 길어지고  
 당기면 짧아지는 것  
 끝까지 제가 죽는 날을 모르면  
 그 또한 별 것 아닌 일  
 이런 저런 쓰라림  
 쥐구멍에 처박으려 기 쓰지 말고  
 차라리 한 짐씩 지고 떠나면 될 일

바쁘다는 핑계만 늘어놓고  
 그냥 떠나 버리면  
 하늘은 핑계로 가득 찰 테니  
 잘 놀았던 이 놀이터도  
 하늘의 손바닥이라 하던데  
 네 것 내 것 가리지 말고  
 무심결에 뿌려 쌓인 먼지나 닦아 놓아  
 다시 올지 모를 길이나 밝혀 두어야겠다.

## 조주현

## 그때 그것을 알았더라면

빈 가지들 사이로  
멀리 지는 해를 바라보니  
그때 들리지 않던  
가슴 두드리는 소리

산 그림자 가까워 오니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나 보다

온 세상이 내 것인 양  
한때는 공명심에  
부질없는 열정에 사로잡혀  
인생의 의무를 잃고  
그동안 허깨비를 사랑했네

세상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리지만  
인생의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수많은 모퉁이를 돌아가야 하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 졸업. 1999년 《한국일보》 문예공모 시부문 입선.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The International Library of Poetry Member. 2006년 8월과 12월, International Library of Poetry로부터 Editor's Choice Award 2회 수상, 작품은 "Timesless Voice" 시집에 실림.

목숨이 있는 한 늦은 것은 없으리라

누구나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에  
주어진 생명에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최선을 다 하여  
기쁨과 행복을 찾으리라

당신께서 주신  
시간은  
황금이 아니라  
생명이었음을—  
사랑이었음을—

아. 그때 그것을 알았더라면  
나. 당신께로 돌아가는 날  
바람의 손을 잡고  
구름 타고 오를 것을

## 차신재

### 나비의 노래

때로는  
그대 고요한 이마에  
하얀 마음 엮기도 하고

더러는  
그대 목덜미에  
수줍은 입술 엮기도 하고

때로는  
동그란 씨방에 들어  
그대 품에 황홀히 잤아들기도 하다가

끝내는  
그대 향기에 취해버린  
간절한 마음  
한 줄 시(詩)로 사루지요.



강릉 출생. 『심상』 등단. 시와 사람들 동인.

## 채수옥

## 보우 강의 고뇌

밍밍한 연두색의 넓은 강폭  
 수많은 세월이 가라앉은 물밑  
 속내 알 수 없는 난해한 물빛은  
 낮설었다

연중 절반이 우기라는 이곳  
 무거운 하루가 강기슭을 배회하고 있었다  
 볼 수 없는 갈등과 막막함의 눈길이  
 강 밑을 오래 서성이게 했다

넘쳐흐르는 비릿한 풍요가  
 문득 캘리포니아의 갈등의 강바닥으로 회오리쳤다  
 투명하게 벗지 못한 표정 잃은 강은 어두웠다  
 들풀이 살아 있음을 나부끼는 강둑  
 손 닿으면 물들 듯 질푸른 나무들의 생기

하지만



강원도 강릉 출생. 1996년 《미주한국일보》 문예공모 시 당선. 한국 『한글문학』 시 당선.

건조한 가슴을 앓는 외로움이  
밀림을 건너가는 한 때의 야생 사슴 무리 속에  
자신을 놓아버리고 싶은 전율로 떨어야 했다  
절망하지 않을 원시 속으로의 자유

만년설 덮힌 렉키 산의 지척에서  
여름을 밀어내듯 7월의 강은  
빙하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결코 돌아서지 않을  
투명한 생을 꿈꾸며

## 최석봉

## 때밀이 아버지

밭가벗겨  
 옆으로 눕게 하고 때 밀고  
 뒤집어 놓고 때 밀고  
 바르게 눕히고 때 밀어 주시던 아버지

이른 새벽  
 공중 목욕탕 드나들던 열 서너 살  
 아버지는  
 때도 밀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앞부분만 쳐다보던 나를 끌어다  
 때밀이 하셨는데  
 어찌나 아프게 미는지  
 온몸이 벌겍게 쓰리고 아팠다

그런데도  
 내 고추는 늘 깨끗하게 서 있어  
 아버지께 부끄럽고 죄송했다



『창조문학』 시, 『아동문학』 동시 등단. 미주 시문학 회장 역임. 현재 미주한국문인협회 부회장. 저서로는 시집 『원원 세분 오 에잇 베니스 블루버드』, 『하얀강』, 『풍경은 혼자 울지 않는다』, 『사랑한다는 소리는 아름답다』가 있다. <http://myhome.mijumunhak.com/choisukbong>



오늘 아침 사우나에서  
내 몸 맡기고 때밀이 하면서  
60여 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지로부터 깊고 지극한 사랑을 받은 내가  
내 아이들에게 그만한 사랑을 했는지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부자간의 사랑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인가?

## 최익철

### 신호등

새벽이 열리고  
붉은 빛이 솟는다  
나의 동반자는  
엔진에 불을 옮겨 붙인다.

신호대기 중  
잠을 깬 새벽바람이  
떨어져 내린 계절을  
멀리 날려 보내고 있는 것이 보인다

와이퍼에 끼인 노란 잎 하나  
파르르 떨다 온몸을 흔든다

푸른 물결이 흐른다  
에메랄드 빛 따라  
우리의 삶도  
굴레를 움직인다



강릉 출생. 월간 『순수문학』 등단. 시집 『빛바랜 사진첩』.  
<http://myhome.mijumunhak.com/choiraphael>

억겁이 지난다 해도  
결합할 수 없는 세 개의 눈빛 속에서  
우리의 거대한 강은  
흐르고 있는 것이다.

## 추은진

### 파마하는 날

수요일 아침.  
뽀글뽀글  
머리를 묶는 날이다.

설레는 맘에  
심장까지 빨리 뛰고

생머리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는  
처마 밑 작은 새.

미장원을 향해  
차를 타고 달리는  
내 머리 위로

붉은 대머리 독수리가  
퍼드덕 날아간다.



『문학세계』, 『미래문학』 시부문 신인상.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 한만희

### 풍향(風向)

바람이 불어온  
곳이 있으면  
흘러가는 방향이  
있기 마련인 것을

순수의 가슴을 내 보이면  
따스한 감동을  
눈시울 적신 미소로  
깊아 오는 정리의 수준이  
있기 마련인 것을

바람으로 실려와  
안개로 번져 사라지는  
인간 윤변의 회의  
그 미궁의 섭리가  
끝내 풀리지 않아  
양금으로 남는 회환의 무게



1938년 경기도 화성 출생. 1974년 도미. 수필집 『가슴에 묻어둔 텃밭』 발간(1997), 시집 『안개에 걸린 강』 발간(2004). 현재 애틀란타 문학동인회 회장, 윤동주 문학사상 선양회 회장.

바람 불어 온 방향이  
가는 길 인생 여정이나  
같이 마련인 것을